

## 패션과 욕망

12월 18일까지 파운드리 서울에서 진행되는 <Personal Shopper>는 토비아스 카스파의 국내 첫 개인전이다. 동시대의 사회 변화를 예민하고 빠르게 포착하는 그는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션 제작 방식을 변용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개인전은 최근 몇 년간 몰두하고 있는 'Personal Shopper, The Japan Collection, Epicenter'의 세 가지 시리즈 신작과 근작 32점 그리고 파운드리 서울을 고안한 설치작업 등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 스웨터 27벌로 이뤄진 'Epicenter', 일본에서 특히 인기를 얻은 자수 작업을 초고해상도로 촬영해 다양한 크기로 출력하는 'The Japan Collection' 그리고 전시 제목이기도 한 'Personal Shopper'는 팬데믹을 겪으며 사라져가는 퍼스널 쇼퍼와 급부상하는 온라인 패션숍의 현상을 표현한다. 온라인 편집숍에서 고른 한 장면을 캔버스에 출력하고 그 위에 실제로 사용한 패턴이나 붓 자국을 실크스크린하는 독특한 방식도 눈여겨볼 것. 'The Japan Collection' 중 손바닥보다도 작은 'Tiger(2022)'를 약 8m의 보이드 구간에 대형으로 프린트한 코너 또한 백미다.

WEB foundryseoul.net EDITOR 신진수

1 토비아스 카스파 <'Atelier (Trunkshows 2022)> Courtesy the Artist and Galerie Peter Kilchmann, Zurich. 2 토비아스 카스파 <Personal Shopper(2022)> 파운드리 서울 전시 전경.

## 시라 리옹 40주년 전시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 및 케이터링 전시인 시라 리옹이 2023년에 40주년을 맞이한다. 시라 리옹은 1983년 '시라 푸드 트레이드 Sirha Food Trade'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현재는 모든 식품 서비스 업계 종사자를 위한 필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시라 리옹은 2년마다 5일 동안 개최되며, 40주년 전시는 2023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업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5개의 시라 다이내믹스를 선보이며 관련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클래스,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에 주목하며 이에 식품 업계가 나아가야 할 친환경 행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WEB sirha-lyon.com ASSISTANT EDITOR 강성영



## 크리스마스 인 파리

150여 년간 파리 중심부에 자리한 사마리텐 파리 폰 네프 백화점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펼쳐진다. 럭셔리 문화를 이끄는 LVMH가 6년간의 리노베이션 끝에 2021년 오픈한 사마리텐 백화점은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황홀한 실내 장식을 선보인다. 파리에서 열리는 가장 신나는 댄스 축제를 컨셉트로 패션, 푸드, 리빙 등 다양한 브랜드가 기획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사마리텐 백화점이 제안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디어와 특별한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파리에서 맞이할 예정이라면 꼭 한번 둘러보길! 입구에 들어서서 순간 낭만으로 가득한 선물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TEL 33 1 88 88 60 00 ASSISTANT EDITOR 강성영